

## 보건계열 대학생의 교수신뢰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은영 · 김숙향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 Effect of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among allied health students

Eun-Young Lee · Sook-Hyang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cience, Hanseo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ook-Hyang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cience, Hanseo University, 46 Hanseo 1-ro, Haemi-myun, Seosan, Chungcheongnam-do, 356-706, Korea, Tel: +82-41-660-1571, Fax: +82-688-1571, E-mail: sookim@hanseo.ac.kr

Received: 14 June 2016; Revised: 28 August 2016; Accepted: 28 August 2016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in allied health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263 allied health student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27 questions of professor trust by Likert 5 scale and 29 questions of learning flow by Likert 6 scale. Cronbach's alpha in this study was 0.97 in professor trust, 0.96 in learning flow.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The score was 3.72 in professor trust and 3.46 in learning flow.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learning flow and professor trust including intimacy, professional, teaching skills and leadership.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learning flow was related with professor trust.

**Conclusions:** The learning flow depends on professor trust. Based on the research, improvement directions that put strong emphasis on low section of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must be placed.

**Key Words:** professor trust, health-related majors, learning flow

**색인:** 교수신뢰, 보건계열, 학습몰입

### 서론

오늘날 대학에서 교수는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 과거와 달리 전문성이 강조된 현대에서는 동료관계로도 언급되며 교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학생은 교수로부터 지식 뿐 아니라 인성을 배우며 졸업 후 향후

계획을 세우는데 교수를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인식한다. 또한 대학에서의 배움은 행동 등 사회에서의 첫걸음을 걸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며 이런 역할에는 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교수-학생의 관계는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도 동반자적인관계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수는 학생들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그 미치는 영향은 교수와 학생과의 신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

교수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해당 과목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만큼 집중하는지와 학과활동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는 학생들

이 학습하는 과정을 즐겁게 만들어 학습과정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된다[2]. 이와 같이 교수를 신뢰함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 성취도와 몰입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성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은 정기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고 주로 강의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인해 피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3]. 그리고 대학에서의 교수-학생의 관계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관계에 비해 상호작용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신뢰를 만들어 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피상적인 관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은 물론 학과 활동에 소극적인 참여로 이어져 결국에는 학습몰입과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연구가 된 반면에 대학교에서의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3-5]. 또한 대학생이 중학생보다 교사에 대한 더 낮은 신뢰를 보였으며[4], 교사에 대한 신뢰가 고등학생 때 보다 대학생 시기에 감소하였다[5]는 연구가 이루어져 대학생이 느끼는 교사에 대한 신뢰는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과 이[3]는 대학생들에게 조사한 교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높았으며, 교수에 대한 친밀감을 높게 평가할수록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대학교에서의 생활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연구에서 보는바와 같이 교수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대학교육의 과제가 되며 목표가 될 것이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학문을 배우며 사회에 공헌하고 전문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는다. 또한 계열의 특성상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많으며 실습수업이 많아 가까이 대면하여 배워야하는 점, 국가고시·자격증에 대한 정보공유 등으로 인해 긴밀한 유대관계가 요구되어 학습몰입 관련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 현재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습관련 연구로는 스트레스[6], 학습 선호 전략 및 기억[7], 건강 라이프 스타일[8], 문제 중심 학습 성취도와와의 관련성[9] 등의 연구가 보고 되었으나 교수신뢰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계열학생들의 교수신뢰와 학습몰입의 정도를 알아보고 상호 상관성 및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개선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 4년제와 3년제 보건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신뢰와 학습몰입 정도를 알아보고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횡단면 상관성 연구로 편의추출법을 적용하여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IRB No: P01-201512-22-001).

설문조사는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국내 대학의 4년제와 3년제 대학의 32개 학교를 선정하여 보건계열 학과 중 13개과(치위생,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 치기공, 임상병리, 의예, 안경광학, 의료보장구, 건강관리, 의료복지, 보건의료관리)에서 연구자가 선정한 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을 링크로 배부하여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를 총 271(90.3%)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완전한 설문지 263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보건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학년은 대학을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전공수업보다는 교양수업이 많다는 가정 하에 해당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보건계열 대학생이다. 일반적으로 분석 자료의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모형검증에 적합한 표본크기는 200이상으로 제안하고 있고[10], 표본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측정변수의 최소 20배면 만족한다는 Kline[11]의 방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 12개를 기준으로 표본의 크기는 240명으로 요구되어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 연구들을 통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수정 보완 한 뒤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들이 유사성이 많다고 여기는 문항을 수정 한 후 최종 설문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학년, 학교 소재지, 해당 학과의 이름, 출신 고등학교 계열, 평균 학점의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수신뢰 문항은 정과 박[12]이 개발한 도구로 학생이 교수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친밀감,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력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된 총 27개 문항이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가 높음을 나타내며, Cronbach  $\alpha$  = 0.965이었다.

학습몰입은 Csikszentmihalyi[13,14]가 제시한 몰입상태에

서 일어나는 특성을 상정한 후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김 등[15]이 개발한 도구로 현재 학습과정이나 활동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도구로 총 29문항으로 구성한다. 측정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감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 = 0.963$ 이었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 SPSS(IBM SPSS Statistics 22.0)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량을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신뢰, 학습몰입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 후 사후분석으로 Duncan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교수신뢰, 학습몰입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친 특성과 교수신뢰의 하위항목과의 학습몰입의 분석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교수신뢰와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Table 1. The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according to general subjects

Characteristics	N(%)	Professor Trust		Learning Flow	
		Mean $\pm$ SD	p-value*	Mean $\pm$ SD	p-value*
Gender					
Male	76(28.9)	3.74 $\pm$ 0.79	0.767	3.59 $\pm$ 0.81	0.083
Female	187(71.1)	3.71 $\pm$ 0.60		3.41 $\pm$ 0.76	
Age					
Under 20 years	36(13.7)	3.75 $\pm$ 0.67 <sup>b</sup>	0.001	3.49 $\pm$ 0.77	0.905
21-24 years	190(72.2)	3.78 $\pm$ 0.61 <sup>b</sup>		3.45 $\pm$ 0.82	
Over 25 years	37(14.1)	3.34 $\pm$ 0.77 <sup>a</sup>		3.51 $\pm$ 0.60	
Grade					
2nd grade	136(51.7)	3.81 $\pm$ 0.62 <sup>b</sup>	<0.001	3.56 $\pm$ 0.79	0.122
3rd grade	78(29.7)	3.78 $\pm$ 0.66 <sup>b</sup>		3.37 $\pm$ 0.81	
4th grade	49(18.6)	3.36 $\pm$ 0.66 <sup>a</sup>		3.35 $\pm$ 0.67	
Area					
Metropolitan area	44(17.0)	3.92 $\pm$ 0.45	0.091	3.57 $\pm$ 0.58	0.923
Chungcheong-do	168(64.9)	3.71 $\pm$ 0.68		3.47 $\pm$ 0.76	
Jeolla-do	25(9.7)	3.57 $\pm$ 0.54		3.45 $\pm$ 0.89	
Gyeongsang-do	17(6.6)	3.51 $\pm$ 0.77		3.56 $\pm$ 0.91	
Gangwon-do	5(1.9)	3.48 $\pm$ 0.42		3.53 $\pm$ 0.49	
Education					
College	37(14.3)	3.71 $\pm$ 0.65	0.924	3.50 $\pm$ 0.76	0.691
University	222(85.7)	3.73 $\pm$ 0.60		3.45 $\pm$ 0.67	
High school					
Academic high school	232(88.5)	3.73 $\pm$ 0.66	0.474	3.54 $\pm$ 0.76	<0.001
Vocational high school	30(11.5)	3.64 $\pm$ 0.61		2.93 $\pm$ 0.75	
Academic score					
>4.0	52(19.8)	3.63 $\pm$ 0.69	0.269	3.72 $\pm$ 0.75 <sup>b</sup>	<0.001
3.0-4.0	173(65.8)	3.71 $\pm$ 0.67		3.49 $\pm$ 0.77 <sup>b</sup>	
<3.0	38(14.4)	3.86 $\pm$ 0.55		2.99 $\pm$ 0.67 <sup>a</sup>	
Major					
Nursing science	43(16.3)	3.64 $\pm$ 0.69	0.370	3.69 $\pm$ 0.80 <sup>a</sup>	0.037
Operation treatment	32(12.2)	3.71 $\pm$ 0.65		3.61 $\pm$ 0.52 <sup>ab</sup>	
Physical therapy	38(14.4)	3.91 $\pm$ 0.56		3.59 $\pm$ 0.78 <sup>ab</sup>	
Dental hygiene	79(30.0)	3.72 $\pm$ 0.57		3.36 $\pm$ 0.71 <sup>ab</sup>	
Etc.	71(27.0)	3.66 $\pm$ 0.77		3.30 $\pm$ 0.90 <sup>b</sup>	

\*by t-test or One way ANOVA test at  $\alpha=0.05$

<sup>a,b</sup>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신뢰와 학습몰입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신뢰와 학습몰입은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신뢰는 나이에서 21-24세는 3.78점, 20세 이하는 3.75점으로 유사하였으며 25세 이하는 3.34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아졌다( $p=0.001$ ). 학년에서는 2학년 3.81점, 3학년 3.78점, 4학년 3.36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p<0.00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인문계는 3.54점으로 높았고, 전문계는 2.93으로 낮았다( $p<0.001$ ). 학점에서는 4.0이상은 3.72점, 3.0-4.0은 3.49점, 3.0이하는 2.99점으로 학점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p<0.001$ ). 전공에서는 간호(학)과 3.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작업치료(학)과 3.61점, 물리치료(학)과 3.59점, 치위생(학)과 3.36점, 기타(학)과가 3.3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0.037$ ).

### 2. 주요변수의 특성

교수신뢰와 학습몰입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교수신뢰는 친밀감,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력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다. 교수신뢰는 5점 척도, 학습몰입은 6점 척도로 측정 되었으며 교수신뢰 평균은 3.72점, 학습몰입 평균은 3.46점이었다. 교수신뢰의 하위항목 중 전문성이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의능력은 3.91점, 지도력은 3.5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밀감은 3.35순이었다.

### 3. 교수신뢰와 학습몰입의 상관관계

교수신뢰의 하위항목과 학습몰입 간의 관련성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교수신뢰의 하위항목 친밀감( $r=0.313$ ), 전문성( $r=0.126$ ), 강의능력( $r=0.284$ ), 지도력( $r=0.295$ )과 학습몰입은 상호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2.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Variable	Min	Max	Mean±SD
Professor trust	1.48	5.00	3.72±0.66
Professional	1.00	5.00	4.06±0.70
Teaching skills	1.40	5.00	3.91±0.69
Leadership	1.00	5.00	3.58±0.80
Intimacy	1.00	5.00	3.35±0.80
Learning flow	1.48	6.00	3.46±0.78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Variable	Intimacy	Professional	Teaching skills	Leadership	Learning flow
Intimacy	1				
Professional	0.616**	1			
Teaching skills	0.664**	0.737**	1		
Leadership	0.729**	0.724**	0.734**	1	
Learning flow	0.313**	0.128*	0.284**	0.295**	1

\* $p<0.05$  by Pearson's correlation,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lated factors of learning flow

Model	B	SE	$\beta$	t	p-value
Intimacy	0.175	0.080	0.178	2.176	0.030
High school(Academic high school)	0.426	0.134	0.175	3.182	0.002
Academic score(>4.0)	0.724	0.149	0.368	4.850	<0.001
Academic score(3.0-4.0)	0.475	0.125	0.287	3.812	<0.001
Leadership	0.257	0.294	0.262	2.732	0.007
Professional	-0.321	0.096	-0.290	-3.340	0.001
Teaching skills	0.215	0.102	0.191	2.098	0.037

F=13.415,  $p<0.001$ ,  $R^2=0.269$ , Adjusted  $R^2=0.249$

Dependent variables: Learning flow

Excluded variables: Major

Academic reference: <3.0

High school reference: Vocational high school

#### 4.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학습몰입을 종속변수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친 대상자의 특성과 교수신뢰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0 이상의 학점( $\beta=0.368$ )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수신뢰의 전문성( $\beta=0.290$ ), 3.0-4.0 사이의 학점( $\beta=0.287$ ), 지도력( $\beta=0.262$ ), 강의능력( $\beta=0.191$ ), 친밀감( $\beta=0.178$ ),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 $\beta=0.175$ ) 순이었다. 이 모형에 대한 수정된 설명력은 24.9%였다.

#### 총괄 및 고안

대학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학문 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며 조직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6]. 이런 신뢰에 대한 연구는 기업들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대학에서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선행 연구[18-21]에서 보면 보건계열에 대한 학습몰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학생들의 학습에 질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전문화된 보건계열 교육에서의 교수에 대한 성과가 평가되고 있어 보건계열학과 대학생들의 교수신뢰 정도를 조사하여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학습몰입 향상을 위한 방향 제시 및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교수신뢰는 학년이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낮았다. 즉,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교에 적응할수록 불신이 생긴다는 것이다. 기타 다수의 의견으로 제시되었던 교수와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며 많은 학생들이 교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의견에서 보이듯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만이 쌓여 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17]에 따르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누적된 학습경험으로 다양한 전략을 사용 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고학년에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수신뢰를 높이는 방법일 것이지만 고학년일수록 자기만의 전략이 있어 체계화되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인 특성에서의 학습몰입은 전문계 고등학교 보다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계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차이가 있는데 기초 학문에 대한 지식을 인문계 학생들보다 깊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학습몰입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점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

게 나타났다. 학점이 높은 학생은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성적을 높이기 위해 학습에 몰입하여 좋은 학점을 받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교수신뢰는 5점 만점에 평균 3.72점으로 이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신뢰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연구[18]의 4.02점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성의 점수가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밀감의 점수는 3.35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건계열은 전문적인 직무를 위한 학습을 하는 학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습하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해야 한다. 그에 따라 교수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 어려워 친밀감에 대한 점수는 낮게 나타난 경향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자의 학습몰입은 6점 만점에 평균 3.46점으로 5점 만점으로 변환 했을 때 2.88점이었다. 이는 전문대학 공학계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인지, 문제해결력, 학습몰입, 성취도의 연구[19]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20점, 유아음악교육에서 교수의 감성리더십이 학습몰입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0]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23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몰입에 대한 연구[21]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34점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한 학과가 아니라 한 계열을 대상으로 하며 신입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년을 조사하여 여러 집단이 같이 나타나 중간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된 논문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대학생들에 대하여 분석 결과, 교수신뢰가 높아질수록 학습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냈다. 특히 교수신뢰의 하위 항목 중 친밀감이 학습몰입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다. 이는 학생들은 교수에게 관심과 이해를 받기 바라며 정서적으로도 유대감을 가지도록 바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타 의견에서도 교수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운 점과 학생 수에 비해 교수가 적어 상담 할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 유대감을 가질 수 없다는 점, 교수와 개인적인 친밀감을 가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들은 가족에서의 가족애를 학교에서의 교수에게서도 느꼈으면 하며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고 이해받겠다고 생각이 들면 학습에 대한 몰입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에서 여건이 어렵지만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따로 상담시간을 마련하여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수와의 동아리 같은 학습 외 활동을 통하여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습 때이라도 항상 학생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며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가까운 관계가 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행연구[22]에 따르면 효과적인 교수행동 요인으로 유머감각을 높게 평가하였다. 적절한 유머감각을 사용하면 친밀감이 높아져 결국 학습몰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신뢰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과 학점도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교수신뢰의 4개의 하위항목 중에서 전문성, 강의 능력, 친밀감, 지도성이 모두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전문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지도력, 강의 능력, 친밀감 순이었다. 특히 전문성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는데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교수들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여 학생들과의 라포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김[1]의 연구에서는 교수신뢰의 하위 항목이 학습몰입에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전문성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보건계열 학생들은 전문적인 과목을 배우며 학습을 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가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으나 여러 지역의 대학(교)을 대상으로 한 편이추출로 인하여 모든 지역별, 학교별, 학과별로 균등하게 조사되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층화 및 무작위 추출 표집을 통한 반복연구를 하도록 하며 문과, 이과 같은 인문계 계열 또는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만족도 및 미래발전도 등과 같은 변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학과 대학생의 교수신뢰와 학습몰입의 관계를 확인 하였으며 학습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계열 학생들의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신뢰의 향상을 위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수법 접근을 통하여 학생들로부터 학습몰입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5년도 한서대학교 교내 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결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소재의 일부 보건계열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교수신뢰와 학습몰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나이( $p=0.001$ )와 학년( $p<0.001$ )이 낮을수록 교수신뢰가 높았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2.93\pm 0.75$ ) 보다 인문계( $3.54\pm 0.76$ )가 학습몰입이 높았으며( $p<0.001$ ), 학점( $p<0.001$ )이 높을수록, 간호, 작업치료, 물리치료, 치위생, 기타 순으로 학습몰입이 높았다( $p=0.037$ ).
3. 교수신뢰의 4개의 하위영역 전문성( $p<0.01$ ), 강의능력( $p<0.05$ ), 친밀감( $p<0.05$ ), 지도성( $p<0.05$ )이 모두 학습몰입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교수신뢰는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4.9%였다.

이상의 결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교수신뢰와 학습몰입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교수신뢰와 학습몰입이 낮게 나타난 부분을 중점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Kim BY. The relationship between faculty trust, flow on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perception of hotel and tourism students. J Tour Sci 2014; 38: 37-55.
2. Hoffman. D, Novak. TP. Marketing in hypermedia computermediated environments: conceptual foundations. J Mark 1996; 60: 50-68. <http://www.jstor.org/stable/1251841>.
3. Jeong EI, Park YH. Relations among faculty trus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ian J Educ 2008; 9: 73-93.
4. Kim JS. Trust of parents among middle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Master's thesis]. Incheon: Univ. of Inha, 2004.
5. Park YS, Kim UC. Factor influencing trust among Korean adolesc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relational trust. Korean J Psychol Sci Issues 2006; 12: 85-127.
6. Bang YS, Kim HY.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coping style and learning motivation on life of health department university students who will take national examination. J Korea Entertain Industry 2014; 8: 73-80.
7. Bang YS, Kim HY. Academic preference strategy and memory according to learning style of students majoring in health. J Korea Entertain Industry 2014; 8: 9-16.
8. Lee SH, Park JS, In MA, Bae SS, Jang JH, Kim SH. The influence of health lifestyle to the learning attitude and the learning satisfaction of health affiliated students. J Korean Soc School Health Educ 2012; 13: 13-22.
9. Park BY, Jin BH, Kim KK. Learning factors affecting the student's learning achievement of problem-based learning in the school of dentistry.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8;

- 32: 261-9.
10. Lee HS, Lim J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AMOS 16.0. 1st ed. Seoul: Bupmoonsa; 2009: 1-310.
  11. Kline R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5: 1-432.
  12. Jeong EI, Park Y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ofessor trust scale(PTS). *Korean J Psychol* 2009; 28: 405-26.
  13. Csikszentmihalyi M., Seligman MEP,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Springer Netherlands; 2014: 279-98.
  14. Csikszentmihalyi M. Chapter 14. Toward a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Springer Netherlands; 2014: 209-26.
  15. Kim AY, Tack HY, Lee CH.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earning flow scale for adults. *Korean J Educ Psychol* 2010; 24: 39-59.
  16. Lee SJ, Han JS. A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acher-trust scale for adolescences. *Korean J Educ Psychol* 2004; 18: 23-39.
  17. Jung EK. Relation between learning strateg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5; 15: 371-7. <http://dx.doi.org/10.13065/jksdh.2015.15.03.371>.
  18. Lee EK, Jung SY. The study on professor trus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2014; 9: 133-42. <http://dx.doi.org/10.15715/kjhcom.2014.9.2.133>.
  19. Chung AK, Maeng MJ, Yi SH, Kim NY. The effects of meta-cognition, problem-solving ability, learning flow of the college engineering students on academic achievement. *Electron Inf Eng* 2010; 47: 73-81.
  20. Kim KN,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or's emotional leadership, learning flow and attitude in music education for infants. *J Early Child Educ* 2014; 34: 167-85.
  21. Kim SH, Park SY.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Ind Coop Soc* 2014; 15: 1557-65.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57>.
  22. Jung YR, Hwang SH, Ahn SY, Sim SH, Han HI, Choi HS. Efficient teaching behavior in lecture-style instruction of dental hygiene.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 189-200.